

## “코로나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행렬** 26일 광주 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707명을 기록해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의 관문’ 광천동 버스터미널 매장 직원·손님 확진자 쏟아져 공공·종교·학교·유흥시설 곳곳서 발생 대규모 신규 감염 우려

광주지역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버스터미널 내 매장에서 시작된 감염사례는 매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역당국은 긴급하게 버스터미널 위험도 평가와 심층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대표소 무인발권기에서 직원 도움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매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명은 터미널과 이어진 복합문화공간 유스퀘어 내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 매장과 관련해 업주, 손님, 지인 등 모두 11명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대표소 무인발권기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승차권을 발급 받은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유스퀘어 내 2개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터미널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자 중 일부가 터미널 내 식당가(푸드코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문자(5월 21일 12-12시 40분, 22일 오후 6시-6시

40분, 24일 7시 30분-10시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광역당국은 특히 공공 이용시설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터미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터미널 관련 확진자의 중학생 자녀도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학 중인 서구 소재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807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광주에서는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시설, 종교시설, 학교, 유흥업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오후 2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3명, 축산물 유통업 관련 2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 등 8명(누적 2759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24일 확진자가 발생한 관

제센터에선 직원 등 113명을 검사한 결과, 동료 1명을 포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20명을 자가 격리하고 이들을 제외한 근무자를 재편성해 다음 달 5일까지 비상 운영하도록 했다.

광주에선 최근 종합버스터미널 관련 11명을 비롯한 축산물 유통업 관련 18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31명, 광산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1명, 서구 동로 지인 모임 관련 13명,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32명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접촉을 통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는 하절기 폭염 등에 대비해 오는 31일부터 시청 야외음악당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5·18 왜곡’ 14건 수사 의뢰

광주시가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왜곡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영상 2건 등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왜곡·폄하·조롱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13건

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1건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유튜브 영상이다.

그동안 수사 의뢰, 고발은 주로 5·18 기념재단에서 진행했으나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 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 “인터넷상에 왜곡 행위 지속”

다만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해 비난을 샀던 위덕대 교수와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왜곡 처벌법에 학문·연구 목적이었는지 여부,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강도에 대해 형사적 조처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에 따라 민사상 명예훼손

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신문 만평도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인 만큼 비난 소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터넷상에는 아직도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왜곡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전공대 입시요강 지역인재 전형 없다

110명, 수시 90%·정시 1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시 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지역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인재 전형’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26일 단일학부(에너지공학부)를 모집단위로, 수시 90%, 정시 10%를 주 내용으로 한 2022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대학 누리집(kentech.ac.kr)에서 볼 수 있다.

대학 소재지 출신 학생을 별도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 등은 앞서 한국에너지공대 측에 “지역 우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시는 학생부종합(일반전형)으로 90명을 선발하며 수능 위주의 정시와 정원의 입학(고른기회 전형)에서 각각 10명 등 총 110명을 뽑는다. 고른기회 전형은 저소득과 농어촌 학생이 대상이다.

수시는 1단계 서류전형(4배수)과 2단계 면접 전형을 각 50%씩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2단계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30%)과 발산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인문적 통찰 역량을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창의성 면접(70%)으로 평가한다.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나 정시는 수학과 과학탐구(1개 과목) 등급 합이 3등급, 영어는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수시전형 지원서 접수하는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대학 측은 내년 3월 정상개교를 목표로 현재 1단계 캠퍼스 핵심시설인 행정동과 강의동 건립을 위한 토건·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의 입찰을 마무리 짓고 교원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이건희 컬렉션 6월 말 광주에서 만나다	▶16면
KIA가 6년을 기다린 이진영의 파워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전남 SRF발전소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문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그동안 나주 SRF 발전소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과의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 열공급에 대한 합의 등 상생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SRF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감소와 추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RF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주 SRF 발전소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기배출물질은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공사의 이러한 진심 어린 계획과 노력을 믿어주시길 바라오며, 신뢰의 마음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시민 여러분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깨끗함과 따뜻함을 드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7.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창화